

산방산탄산온천發 코로나19 방역 허점

당국, 600여명 방문자 명단 중 아직 100여명 미검사 추정
 검사인원 정확한 통계도 못내
 추가 확산 우려에 주민들 불안



연이은 태풍 끝 물만남 참조기 손질에 바쁜 어민들 12일 제주시 한림항에서 수확한 참조기를 어선에서 곧바로 내려 어민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제주 산방산탄산온천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면서 도 방역당국의 방역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지난 주말 산방산탄산온천과 관련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이 안덕면 화순리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면서 추가 지역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와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0~11일 서귀포시 산방산탄산온천 직원 A(제주 53번)씨와 가족 B(제주 52번)씨가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직원 A씨는 지난달 28일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으나 10일 검사에서 미결정 판정돼 11일 오후 1시 30분쯤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이송돼 재검사 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앞서 A씨의 가족 B씨는 10일 오후 7시 30분쯤 확진판정을 받았다. B씨는 지난달 26일 산방산탄산온천을 다녀온 이력이 있다. B씨는 산방산탄산온천 방문 이력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두려하는 문자를 확인하고, 10일 오전 10시 30분쯤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한 뒤 양성 판정을 받았다.

특히 B씨는 역학조사에서 “지난 3일 가벼운 몸살 기운이 있어 상비약을 복용했다”고 진술했으며 10일 검체 채취 당시 두통과 근육통을 호소하고 발열 증세를 보였다. 확진판정을 받기 이전 B씨의 접촉자는 13일 기준 3명으로 집계됐다. 다행히 이중 2명은 음성으로 확인됐지만, 가족 A씨는 확진 판정 받았다. 또한 A씨의 경우에는 검사과정에서 음성과 양성을 오가는 등 무증상 감염 가능성도 있어 n차 감염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안덕면 화순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지역주민들

은 코로나19의 지역 감염 확산을 우려하며, 전 주민 대상 코로나19 확진 검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도 방역당국은 지난달 말 산방산탄산온천발 확진자가 최초 발생했을 당시 온천 방문자 명단을 확보하고 개인 문자메시지를 통해 검사를 당부했지만, 현재 몇 명이 검사를 받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지난달 말 산방산탄산온천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최초로 발생할 당시 방역당국이 확보한 온천 방문자 명단은 600여명이었

다”면서 “그러나 방문자들 대부분이 명부를 일행 중 한명만 '000의 n명' 형식으로 기록하는 등 정확한 방문자 명단과 연락처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확보된 인원”에 대해서는 개인 문자메시지를 통해 검사를 당부했지만, 아직 정확한 통계는 내지 못했다”면서 “현재 총 방문자 중 500여 명이 코로나19 검사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13일 기준 산방산탄산온천 관련 확진자는 주내 8명, 도외 1명 등 총 9명으로 집계됐다. 이태윤기자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호 공급 속도, 올해 행복주택 1517세대 등 제주형 주거복지 박차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호 공급(행복주택 5000호, 국민임대 4000호, 영구·매입임대주택 1000호) 계획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도는 현재 5523세대 건립을 추진 중이며, 올해 신규부지 매입 등 총 1517세대의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첨단지속단지 행복주택(402세대), 삼도2동(21세대) 등 총 423세대의 입주자 모집을 진행했으며, 안덕 화순 사업계획승인 20세대를 비롯해 건입동, 일도2동, 중앙동, 남원의귀 등 4개 지구 359세대 공사는 착공에 들어갔다. 또 기존주택 272세대를 매입하고 연동 등 2개 지구 230세대에 대한 설계를 진행 중이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2017년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으로 일도2동(120호), 서귀포시 중앙동(80호) 복

합개발 사업도 본격 착공된다. 특히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497번지 김녕종합운동장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 제주김녕 공공주택사업지구는 단순 주거단지를 넘어 문화와 관광이 결합된 특화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 면적은 현재 10만㎡에서 23만㎡로 확대되며, 건설 호수 등 세부계획은 연말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

현재 김녕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확정 변경 계획을 수립 중이며, 친수공간 개발·제주형 건축 특화 등을 통해 제주 동부권의 지역상생 거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또 도는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와 공공택지 및 임대주택 확보 차원에서 추진하는 '동부공원 공공지원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도 올해 지구지정 고시 계획으로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도내 중학 교사 수업시수 전국 최상위

주당 22시간 이상 비율 10% 전국 9개도 중 충남 이어 2위

제주 중학교 교사의 수업시수가 전국 최상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중등현장교사모임은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수업교사를 확보해 평균 수업시수를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2019년 전국 9개도(제주·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중학교 교원 주당 수업시수를 보면 제주는 주당 22시간 이상 수업에 나서는 교사가 10.2% (158명)에 달했다. 이는 충남 10.8% (542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이며, 세 번째로 높은 경남(5.9%)과도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 가장 낮은 전남의 경우는 교사 5031명 가운데 79명(1.6%)만이 주당 22시간 이상 수업에 나섰다.

특히 도내에서도 제주시 동지역

공·사립 중학교 교원 수업시수가 높았다. 15개 학교 모두 주당 수업시수가 17시간을 넘었고, 이를 높은 순으로 정리하면 신성여중 21.6시간, 아라중 19.9시간, 제주제일중 19.7시간, 노형중 19.6시간, 제주중앙중 19.4시간 등이었다.

제주중등교사현장모임은 “과도한 수업시수로 인해 교사들은 학급 내 다들이나 학습태도, 학생 민원을 해결할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또 양질의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 같은 교과 수업 참관 연구와 교과협의회, 학년협의회 등에 참석할 여력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업교사를 확보해 제주시 동지역 중학교 주당 수업시수를 전국 중소도시 평균인 18시간으로 낮춰야 한다”며 “또 교사 1인당 2시간씩 주어지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수업시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교육청에 요구했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지역 반발 한동·평대 해상풍력 환경평가동의안 촉각

오는 16일부터 도의회 임시회

제11대 후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올해 첫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다. 연초 코로나19 사태로 제주도를 상대로 한 업무보고 일정이 전격 취소된 가운데 이뤄지는 첫 업무보고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제주도의 정책 방향과 현안을 공유하고 해법을 모색해줄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16일 제387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25일까지 10일간의 정례회로 들어간다. 각 상임위원회별 제주도로부터 올해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방문을 비롯해 안전 심사를 통해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청원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해녀들의 반발이 일고 있는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등의

안 심사가 예고돼 귀추가 주목된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안전심사에 앞서 현장을 방문해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외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 사업과 공동주택 조성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등의 안도 심사하게 된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올해 재정관리를,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제주자연체 협회 조성사업 개발사업심의위 심

의 결과,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계획 등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농수축경 제위원회는 제주지역화해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을, 교육위원회는 학생인권 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된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10월 임시회 기간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위법 부당한 사항, 예산 낭비 사례, 불편 사항 등에 대한 도민의견을 수렴한다. 오은지기자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위한 “영상감시 솔루션 전문기업” (주)월드씨앤에스

특허 제 10-2125985 호 클린하우스 융합감시제어기 CMC-200



사각지대 감시

클린하우스 내 외부 인체 감지 시 LED점멸과 안내방송, 카메라 회전으로 주의를 줌으로서 불법 쓰레기 투기를 방지하여 깨끗한 환경조성과 효율적인 클린하우스 관리로 유지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안내방송

재활용품 요일 별 배출안내, 쓰레기 배출시간 안내, 불법투기 방지 안내, 공지사항 등 다양한 메시지 전달에 활용됩니다. 특히 재활용품 요일 별 배출안내에 대한 정보가 없는 관광객들에 대한 배출정보 안내 및 계도로 청결한 클린하우스를 유지 함으로서 관광 제주의 깨끗한 이미지를 제고 시킵니다. 야간 방송은 주간 대비 작은 음량으로 자동 조절되어 방송됩니다.

클린하우스 CCTV, 방송 시스템의 시공 표준을 만듭니다.

재활용품 요일 별 배출안내

오늘은 수요일! 페트병 등 플라스틱류를 배출하는 날입니다.



클린하우스 좌측 사각지대 촬영

여기는 음식물 수거함이 설치된 곳입니다. 설치된 수거함 외의 쓰레기 투기는 불법 투기로 낙하되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클린하우스 우측 사각지대 촬영

여기는 의류 수거함이 설치된 곳입니다. 설치된 수거함 외의 쓰레기 투기는 불법 투기로 낙하되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공지 사항 및 이용 시간 안내

쓰레기 배출 가능 시간은 금일 오후 3시부터 내일 새벽 4시까지이며 음식물쓰레기는 24시간 배출이 가능합니다.

